

보 도 자 료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자
강민구 문화홍보실장 ☎032-770-8631
김정훈 책임연구원 ☎032-760-5513
- ◆ 2021. 6. 10. (목) 배포
- ◆ 총 4쪽 (본문 2쪽, 첨부 2쪽)

아델리펭귄의 반격

극지연, '천적' 도둑갈매기 동지 공격하는 아델리펭귄 포착... “우발적 행동 주장”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는 아델리펭귄이 천적인 남극도둑갈매기의 동지를 습격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아델리펭귄의 집단 번식지가 아닌 곳에서 이 같은 행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극지연구소 김정훈 박사 연구팀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케이프 뫼비우스 (Cape Möbius)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로 아델리펭귄들이 도둑갈매기 동지 3곳을 공격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화면 속 아델리펭귄은 도둑갈매기의 알을 밟아서 터뜨리기도 했다.
- 케이프 뫼비우스가 위치한 남극 로스해 일대는 전 세계 아델리펭귄의 약 32%가 번식하는 곳으로, 아델리펭귄의 알과 새끼를 사냥하는 도둑갈매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 연구팀은 호기심이 많고 호전적으로 알려진 아델리펭귄 무리가 침입자에게 보내는 도둑갈매기의 경고음에 이끌려 접근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 펭귄 둥지를 공격하는 도둑갈매기와 달리, 펭귄은 다른 조류의 알이나 새끼를 먹지 않기 때문에 사냥 등 특정 의도를 갖고 공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도 가장 가까운 아델리펭귄 집단 번식지와 17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새끼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 남극 로스해는 수십만 마리의 아델리펭귄과 황제펭귄이 서식하는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펭귄 이외에도 남극이빨고기 (메로)를 비롯한 95 종의 어류, 수십 종의 크릴, 물범, 고래, 바닷새 등이 살고 있다. 생태학적 가치가 높아서 로스해를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 연구과제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지난 5월 국제학술지 'Diversity' 특별호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 (제1저자 김유민, 김종우 극지연구소 연구원)에 게재됐다.
 - ※ Penguins Strike Back: A Report on the Unusual Case of Adelie Penguin (*Pygoscelis adeliae*) Attacks on South Polar Skua Nests Distant from the Breeding Colony
- 김정훈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천적을 공격하는 아델리펭귄의 이번 사례처럼 남극 생태계에는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다"며, "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남극동물들의 행동과 생태의 비밀을 풀어내는 연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도둑갈매기 둥지를 공격하는 아델리펭귄

붙임2. 아델리펭귄 새끼와 알을 사냥하는 도둑갈매기

붙임3. 남극 로스해 케이프 뫼비우스 (Cape Möbius) 지도



1. 아델리펭귄이 남극도둑갈매기 둥지에 접근



2. 남극도둑갈매기를 둥지에서 쫓아내기



3. 남극도둑갈매기의 둥지 안에 들어가기



4. 펭귄에게 밟혀서 깨져버린 남극도둑갈매기 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케이프 뉘비우스 (Cape Möbius) 남극도둑갈매기 둥지 근처에 설치한 모니터링 카메라로 촬영된 장면들. 카메라에 모션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펭귄이나 도둑갈매기가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촬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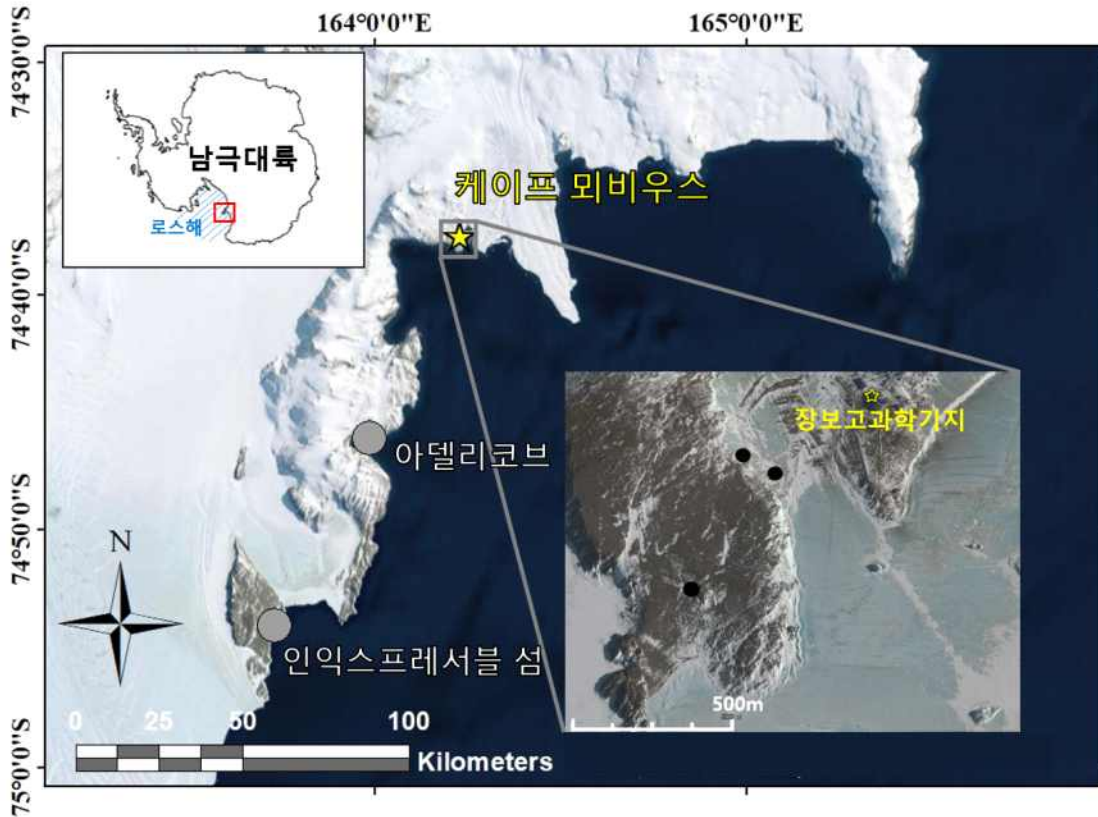
붙임2

아델리펭귄 새끼와 알을 사냥하는 도둑갈매기



붙임3

남극 로스해 케이프 뫼비우스 (Cape Mobius) 지도



아델리펭귄에게 공격받은 남극도둑갈매기 둥지 (검정색 점)와 아델리펭귄 번식지 (회색 점)